오늘 호주오픈 개막…조코비치·세리나 윌리엄스 정상 탈환 도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는 현재 테니스 남녀 세계 랭킹에서 나란히 2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세계 1위 자리를 오래 지키다가 시즌 하반기에 2위로 밀려난 공통점도 있다.

조코비치는 2016년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을 연달아 제패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는 듯했으나 윔블던, 리우 올림픽, US오픈 등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서 앤디 머리(영국)에게 1위를 내줬다. 머리는 윔블던과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 2014년 7월부터 1위 자리를 지켜온 조코비치를 2위로 밀어냈다.

2013년 2월부터 줄곧 1위를 달려왔던 윌리엄스 역시 지난해 윔블던에서 우승했지만 다른 메이저 대회 정상 정복에 실패, 안젤리크 케르버(독일)에게 1위를 빼앗겼다.

따라서 16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을 맞이하는 조코비치와 윌리엄스의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둘은 모두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세계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고 1위인 머리가 4강에 들지 못하면 세계 1위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조코비치가 올해도 정상에 오르면 호주오픈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7회)을 세운다. 반면 머리는 이 대회 결승에 5번이나 올랐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해 희비가 엇갈려왔다. 특히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등 네 차례 결승에서 모두 조코비치에게 패했다.

윌리엄스가 1위에 복귀하려면 최소한 결승에 진출해야 한다. 그러나 케르버가 16강에 오르면 윌리엄스는 무조건 우승을 해야 1위 탈환을 바라볼 수 있다.

두 사람은 나란히 1회전에서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 조코비치는 페르난도 베르다스코(40위·스페인), 윌리엄스는 벨린다 벤치치(48위·스위스)를 첫판에서 상대한다. 베르다스코는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에서도 4승 9패로 잘 싸웠다. 윌리엄스의 첫 상대인 벤치치 역시 상대 전적 1승1패로 지난해 2월 세계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달빛더비’로 8개월 대장정 돌입

K리그 클래식 일정 확정…3월 4일 홈서 개막전

프로축구 광주 FC가 ‘달빛더비’로 2017 시즌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7 K리그 클래식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광주는 오는 3월4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2017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2012년 이후 5년 만에 클래식 무대에서 재개되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 더비’다. 광주가 2012시즌이 끝난 후 사상 첫 강등팀이 됐고, 2013시즌이 지난 뒤에는 대구가 강등의 아픔을 겪었다.

광주가 2015시즌 클래식 복귀에 성공한 뒤 대구도 지난 시즌 승강 티켓을 획득하면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두 팀이 클래식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광주는 대구와 인연이 많다. 지난 2011년 역사적인 광주의 창단 첫 경기 상대가 바로 대구였다. 광주는 안방에서 치러진 K리그 신고식에서 대구에 3-2, 펠레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경기장을 찾은 3만6241명의 관중을 환호시키며 K리그 역사에 첫 발을 내디뎠다.

광주의 강등 역사에도 대구가 있다. 2012년 11월28일 정규리그 43라운드 경기에서 광주는 대구에 0-2패를 당하면서 승강제 도입 후 첫 강등팀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통산 전적은 4승4무2패로 광주가 앞서 있다.

그라운드 밖에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두 광역지자체는 연고지의 한글 이름인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첫 자를 따와 ‘달빛동맹’을 맺고, 인적교류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두 팀 모두 지자체장이 구단주로 있는 시민구단인 만큼 동맹 관계 속 라이벌 전이라는 더비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광주 관계자는 “두 도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동맹관계로 모든 부분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프로스포츠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의식으로 새로운 ‘시민구단 라이벌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K리그 클래식은 총 12팀이 팀당 38경기씩 총 228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K리그 클래식 11개 팀을 상대로 3라운드 로빈방식으로 33경기를 치른 뒤 그룹A(1~6위) 또는 그룹B(7~12위)에 속해 다시 5경기를 치르게 된다.

광주의 올 시즌 목표는 6개 팀에게 주어지는 그룹A(상위스플릿)진출이다. 광주가 그룹A에 속한다면 창단 첫 상위스플릿 진출이며, 그룹B에 속할 경우에는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한편 광양에서 1차 전지훈련을 소화했던 광주 선수단은 16일 포르투갈 알가르베로 2차 동계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돌입한다. 광주는 포르투갈 전지훈련을 통해 외국인 공격수를 테스트 및 영입하고, 독일 1부리그 라이프치히 등 각국 1부 리그 정상급 팀들과 친선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풀타임…팀 꼴찌 추락

스완지, 아스널에 0-4 완패

기성용이 풀타임으로 출전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가 아스널에 완패했다.

스완지시티는 15일 영국 런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홈경기에서 아스널에 0-4로 졌다. 직전 라운드까지 19위에 위치했던 스완지시티는 꼴찌 싸움 중인 헐시티가 본머스를 3-1로 이기면서 리그 최하위로 떨어졌다.

스완지는 전반 중반까지 아스널을 상대로 선방했지만, 전반 37분 선제골을 내줬다.

아스널은 왼쪽에서 알렉시스 산체스가 올린 공을 메주트 외칠이 문전에서 헤딩 슈팅했지만 수비에게 막혔다. 그러나 올리비에 지루가 가볍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아스널은 후반 들어 3골을 몰아넣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아스널은 후반 9분 알렉스 이워비가 문전 오른쪽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 잭 콕에게 맞고 굴절돼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추가골을 얻어냈다.

후반 21분에는 이워비가의 왼발 슈팅이 수비수 카일 노턴에게 맞고 득점으로 연결됐다. 아스널은 후반 28분 산체스의 추가골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기성용은 이날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전반 43분 상대 방에 걸려 넘어지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판정으로 경고를 받았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영국 런던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원정전에서 0-3으로 대패했다.

교체 선수로 출전한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은 20분을 뛰었지만 역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이날 패배로 최근 리그 7경기 무승(2무 5패) 부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남부 스완지의 2016-2017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홈경기에서 기성용이 풀타임으로 출전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가 아스널에 0-4로 대패했다. 기성용(오른쪽)이 상대 아론 램시와 볼을 다투는 모습. /연합뉴스

‘쓴소리’ 신문선 축구연맹 총재 될까

단독 출마…오늘 대의원 투표서 12표 얻으면 당선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쓴소리’ 신문선(59·사진) 전 성남FC 대표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프로축구연맹은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총재를 선출한다. 현 권오갑 총재가 연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단독 출마한 신문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의원 찬반 투표가 시행된다.

신 후보는 대의원 23명 중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총재에 당선된다. 원래 K리그 클래식 12개 구단 및 챌린지(2부) 10개 구단 대표자와 대한축구협회 2명, 권오갑 총재 등 총 25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지만, 챌린지 신생팀 아산은 투표권이 없고 권 총재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신 후보는 “구단들에 비전을 밝힐 공청회가 원천 봉쇄돼 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의원들이 30년 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내 의견에 동조해줘 힘을 얻었다. 선거 당일 정견 발표로 부동표를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북의 ‘심판 매수’ 사건에 대한 연맹의 솜방망이 처리로 리그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프로축구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 개혁을 통한 변화 주장에 호응이 좋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졌던 시·도민 구단들을 중심으로 변화 열망이 크다는 게 신 후보의 설명이다.

장애물도 많다. 신 후보의 재정 확보 능력과 위상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대기업 구단주들이 단골로 맡아왔던 총재가 되기까지 진입장벽도 만만치 않다.

신 후보가 낙선할 경우 정관 규정상 현 총재가 후임 총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 신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권 총재와 결선 투표를 치르는 셈이다. 지난 2013년 취임한 권 총재는 K리그 승강제를 정착시킨 데다 자신이 사장을 맡았던 현대오일뱅크가 K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35억원 상당을 지원해왔다.

현대가(家) 구단 3표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2표가 ‘반(反) 신문선 표’로 분류된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PGA 토머스 ‘하와이 시리즈’ 독식하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2017년 돌풍의 주역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하와이 시리즈를 모두 정복할 기세다.

토머스는 1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 잡아내며 5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는 22언더파 188타. 2위 잭 존슨(미국)을 7타나 따돌리며 단독선두를 질주 중이다.

토머스는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린 PGA 투어 SBS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17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같은 하와이에서 열린 소니오픈에서도 1라운드 ‘꿈의 59타’를 달성하고, 2라운드에도 6언더파 64타로 PGA 투어 36홀 최소타를 작성했다. 토머스는 3라운드에서 54홀 최소타(188타) 타이기록을 세우며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이는 2010년 스티브 스트리커가 존디어 클래식(파71 코스)에서 1~3라운드 동안 세운 188타와 동타다.

존슨도 버디 5개로 5타를 줄이고 중간합계 15언더파 195타로 2위에 올랐으나 1타 차 공동 3위가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개리 우들랜드(미국), 허드슨 스와포드(미국) 등 3명이 포진했다.

전날 공동 13위에 올라 상위권 진입을 노렸던 양용은은 1오버파 71타를 치고 중간합계 7언더파 203타를 기록, 공동 48위로 미끄러졌다.

/연합뉴스